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엠엘비(MLB)와 함께... '상표권, 소비자가 지켜주세요!'

- 상표경찰, 엠엘비(MLB) 개막전 고척돔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운동(캠페인)' -
- 전 세계 엠엘비(MLB) 팬들에게 지식재산 중요성 및 보호노력 널리 알려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3. 20.(수)~21.(목)까지 '2024 엠엘비(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서울 구로구) 경기장 일원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확산 운동(캠페인)은 엠엘비(MLB) 서울시리즈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표경찰은 현장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①지식재산 보호 홍보관(부스) 운영 ②위조상품 관련 교육 및 사업소개 ③팻말(피켓) 거리운동(캠페인) 등을 벌이며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상표경찰은 평가전 및 개막경기가 열리는 3. 17.(일)~21.(목)까지 고척돔 경기장 주요 출입구, 지하철역 일원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현장 단속 및 계도활동도 벌였다.

앞서 상표경찰은 엠엘비(MLB)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서울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엠엘비(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상에선 엠엘비(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366건)하기도 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24 엠엘비(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위조상품 현장 단속·계도활동,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운동(캠페인)을 벌였다”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포츠를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붙임 1.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사진 및 현장 영상 첨부
- 2.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사진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959)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서기관	신훈식 (042-481-8315)



▲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왼쪽에서 4번째)이 3월 20일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서울 구로구) 경기장 일원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왼쪽에서 4번째)이 3월 20일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서울 구로구) 경기장 일원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사진 1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사진 2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사진 3



상표경찰 현장 단속 및 계도 사진 4

